LG전자, 삼두마차 부진의 늪 빠져…

PDP TV에 에어컨·휴대전화 고전 … 1/4분기 휴대전화 309억원 적자

LG전자의 에어컨, PDP(Plasma Display Pannel) TV, 휴대전화 등 삼두마차가 부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LG전자의 에어컨, PDP TV, 휴대전화 등 3대 전략사업이 해외시장에서 판매가격과 시장점유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에어컨 사업은 2005년까지 6년 연속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했으나 급성장하는 중국과 인디아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거나 축소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중국에서 LG전자는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5년 1월 4.7%에서 2006년 1월 3.4%로 판매량 기준 점유율도 4.1%에서 3.0%로 감소했다.

특히, LG전자는 비교적 저가로 인식되는 중국 하이얼과 비슷한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1위인 하이얼(매출기준 점유율 17.1%)은 물론 고가의 일본 Mitsubishi(3.6%)와 Panasonic(4.9%), 삼성전자(3.5%)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낮거나 엇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월 중국 에어컨 평균판매가격(ASP)은 Mitsubishi가 521달러로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467달러), Panasonic(432달러), LG전자(403달러), 하이얼(397달러) 순이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디아 시장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LG전자의 시장점유율(수량기준)은 2005년 1월 43.3%에서 2006년 1/4분기 31.2%로 12.1%p 하락한 반면 2-3위인 삼성전자와 볼타스는 3-5%p씩 뛰어올랐다.

LG전자의 주력 제품인 PDP TV도 최근 북미시장에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NPD그룹의 주간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의 PDP TV 점유율은 3월 1째주 6%에서 4월 1째주에는 13.3%까지 올랐으나 5월 1째주에는 다시 2006년 초 수준인 5.5%로 떨어졌다.

휴대전화 또한 텃밭인 미국 시장과 3세대 WCDMA 시장내 입지가 흔들리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NPD 집계 결과 북미 휴대전화시장에서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4/4분기 18.4%에서 2006년 1/4분기 14.5%로 3.9%p 하락했다.

특히, 2006년 1/4분기에는 3세대 WCDMA 판매량도 50만대에 그쳤다.

이는 2005년 4/4분기보다 무려 150만대, 2005년 1/4분기에 비해 30만대 감소한 것이다.

이로써 LG전자 휴대전화 부문은 2006년 1/4분기에 309억원 영업적자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5월14일부터 북미시장 CDMA 사업자 버라이존을 통해 휴대전화 1대를 사면 3대를 공짜로 주는 1+3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점유율 하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3>